

전염병 두려우세요?



2009년 전 세계가 ‘신종플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또한 속출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염병은 인류의 문명이 거듭 발전 할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전염병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재앙일까 아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재해일까?

전염병이란

원충·진균·세균·스피로헤타·리케차·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겨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을 일컫는다. 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직접적으로 감염되기도 하고 모기나 파리와 같은 매개동물이나 음식물, 수건, 혈액 등과 같은 비동물성 매개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염병은 전염력이 강해 소수의 병원체로도 쉽게 감염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옮겨가는 특성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염병으로는 물의 오염으로

인한 장티푸스나 이질 등이 대표적이며 공기로 전염되는 것은 홍역, 감기, 디프테리아, 결핵, 모기에 의한 일본뇌염, 말라리아가 있으며 성 접촉으로 생기는 성병 등이 있다.

전염병의 역사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을 유행병 즉 역병이라 불렀으며, 역신(疫神)이 내린 병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과거에 전염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박테리아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불과 19세기 후반 쯤 이었다. 그 후로 20세기 들어와서 박테리아 외에 다른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1880년대 이래 항독소와 예방백신들이 개발되고 점차적으로 전염병에 특효를 보이는 항생제들이 개발되어 치료가 급물살을 타면서 점차 전염병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천연두가 박멸되어가던 1970년대 이래로 에이즈, 사스, 인플루엔자 등 30여 종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견되면서 그 위험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

천연두(두창)

천연두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천연두는 다른 말로 마마, 두창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며 역사상 여러 시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낸 무서운 전염병이다. 발병되면 발열, 물집, 농포(고름물집)성의 병적인 피부변화가 나타나는 급성질환으로서 환자의 입, 코, 인후 점막에 있던 바이러스가 기침 등에 의해 주위 사람에게 옮겨져 감염을 일으킨다. 백신의 보급으로 박멸된 첫 번째 전염병으로서 19세기 이후 종두가 보급되면서 급감하였고 1979년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는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되었다.

흑사병(페스트)

인류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다른 말로 ‘페스트’라 불린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여 희생자를 많이 낳았으며, 원인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페스트 균에 의한 것으로 페스트 균에 감염된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이 사람을 물면서 발생한다. 흑사병은 증상에 따라 폐혈성 흑사병, 폐 흑사병, 림프절 흑사병으로 나누어지며 걸리면 검게 변색된 부위에 괴저가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최근 나타난 호흡기 질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최근에 보고된 신종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다. 감염경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염자와의 접촉 특히 호흡기 분비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감염 후 2~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38도 이상의 급작

스런 고열과 기침으로 시작되며 근육통, 오한, 인후통, 설사, 두통 등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경우에 따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전 세계에 걸쳐 계절마다 유행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균주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수 천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사람에게 기존에 면역이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사망자를 낸다. 일부지역에서 한정되게 발병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퍼지며, 계절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발생한다. 바이러스는 코나 목, 폐를 침범하여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전염성이 강해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자 등이 걸리면 사망할 수 있고 종종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감염되며 이외에도 조류의 배설물, 침, 콧물, 대변과 혈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신종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의 일부와 돼지 인플루엔자의 두 변종의 일부에서 생겨났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손이나 호흡기, 눈을 통해서 감염된다.

올 3월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는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를 포함한 3개주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사람 간 전염이 쉬워 빠른 속도로 미국,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전염환자와 사망자를 낳고 있다. 이 병을 부르는 명칭을 처음에는 조류독감과 대비되는 돼지독감이라 불렀으나, 돼지와 연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편의상 신종인플루엔자 혹은 신종플루로 부르고 있다.

증상은 계절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고 37도 이상 발열을 보이고 기침이나 콧물이 나거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일부 사람은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현재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사용되고 있다. >

WHO가 추천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도 손 위생 실천
-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 잘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자주 운동하기
- 만약 당신이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있다면, 마스크 착용하기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 시 어떻게 될까요?

-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지 가벼운 증상만 있을 뿐,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됩니다.
- 그러나 특히 기왕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느낄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쓰고 난 휴지들은 주의해서 버리기
- 직장이나 학교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 만약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일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 섭취하기
-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타미플루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타미플루는 의사들이 처방이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
- 심장병, 당뇨병, 만성적 대사질환, 신장이나 신경계, 혈액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
- 면역이 억제된 환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에이즈 환자)
- 임산부(특히 2-3개월 된 임산부)
- 비만인 사람
- 흡연자

출처 : 질병관리본부